

시멘트 공급 중단에 건설현장 곳곳 '신음'

벌크시멘트레일러(BCT) 운전자 파업 한달여... 도, 국토부·시멘트사 중재노력 불구 합의점 못찾아 도내 건설·레미콘업계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희망"

제주지역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도내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파업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BCT 화물노동자 32명으로 구성된 BCT 분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와 관련

해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위험을 겪고 있는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해 시멘트 화물차주 운임은 12.2%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BCT 화물노동자들은 단거리 운송 중심의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적자 운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업체와 운송사업자 등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관계자는 "과거 제주지역 노동자들은 과적·과로 운행 등으로 낮은 운임을 충당해 왔으나,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해 과적·과로 운행을 할 수 없어 운임이 더 낮아진 상황"이라며 "또 국토부가 실시한 원가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제외돼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BCT 분회 파업이 장기화되자 국토부와 시멘트업체 등을 방문해 중재 노력에 나섰다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

문에 사주와 운송 업체 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또 시멘트업체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만을 위해서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지역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레미콘 업계도 조속한 협상 타결을 호소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레미콘 업체와 BCT 운전자 간의 운송료 마찰로 인해 레미콘 생산을 중단했다는 오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인해 도내 레미콘업체도 기업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어 하루빨리 공장이 가동돼 레미콘 공급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여교사 살해범·의붓아들 학대 계모 중형 대법원 상고심서 각각 징역 30년·11년 원심 유지

제주지역에서 교주 행세를 하며 여교사를 살해한 남성과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이 대법원에서 각각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살인,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교사인 A(27·여)씨를 수십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우체부라고 소개하며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 등을 시키고, '하느님의 뜻'이라며 주먹을 휘둘렀

다. 숨진 A씨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버티다 못해 벗어나려고 했지만 김씨에 의해 살해 당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다섯살 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8·여)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18년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의붓아들(5)을 폭행하고 화상을 입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결과 윤씨는 그해 2월부터 11월 사이 살을 빼게한다며 강제로 의붓아들에게 다리찢기를 시켜 사타구니에 멍이 들게 하고, 먼지제거기로 때려 팔에 상처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불법조업 트롤러선 적발

제주 해상에서 포획 금지 기간을 어기고 조업을 하던 트롤(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해저에 사는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는 그물) 어선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3일 낮 12시48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93km 해상에서 포획 금지기간을 어기고 살오징어를 잡은 전남 여수산적 트롤러선 D호(139t급)의 선장 A(57)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살오징어 포획이 금지됐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살오징어 24kg을 잡아 어획물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섬 추자도에 울려 퍼진 만세삼창 14일 제주 최북단 섬 추자도에 있는 추자도어린이대일향정기념비에서 지역주민들이 일제에 항거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 방조 남성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성인 남녀 3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들은 퇴실 예정 시간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펜션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를 제외한 3명이 숨졌다.

이상민기자

주택화재 사망 영아 '일산화탄소 중독'

어제 부검 실시... 연기 영화 쇼크사 가능성도 제기

속보=지난 13일 제주시 이호동 연립주택 화재로 숨진 생후 3개월 된 남아 영아의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화재로 숨진 생후 3개월 된 영아에 대해 1차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검의 소견

이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부검의는 신생아여서 연기나 화염에 의해 쇼크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숨진 영아의 머리에서 외상이 발견됐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

획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의 합동 감식결과 불은 영아 몸통이 있는 현관 옆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이 난 시각은 지난 13일 오후 1시쯤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3차 감식을 받고 화재 현장 인근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영아의 어머니 A씨 진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한집 살던 남성 살해 50대 여 '징역 20년'

한 집에 살던 남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여)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A(5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같은날 오후 7시 35분쯤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임씨와 A씨는 같은 지번을 가진 주택 내 안채와 바깥채에 살고 있었으며 검찰은 집을 나가달라는 A씨의 요구에 임씨가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은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공소사실을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결별 요구 여성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A(53)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1시58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주택에서 B(55·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 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찾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탐문·잡복 수사를 실시했고, 같은 날 오후 7시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도영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잡초의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이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염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제제, 광합성차지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약없이 감자·당근·양파재배 성공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하하농법이 최선이다

썰파고와 V패스로 농약없이 재배한 농가가 있어
동네 농업인들 사이 소문이 자자하다고

- 썰파고** · 나노 유황으로 만든 320여가지 농약성분이 없으며 살균·살충 효과가 있다
- V패스** · 양자에너지와 히토티류 생분해 복합제제로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으로 식물 무성세포의 복원을 촉진시킨다

당근 생산농가 구좌읍 세승로 김 정 애 (010-5036-1235)
양파 생산농가 대정읍 신도리 문 형 원 (010-2698-2476)
감자 생산농가 대정읍 상모리 박 성 국 (010-3030-0907)

브로콜리, 양배추, 무우, 마늘 등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 기대가 됩니다 (초기 살충제 혼용)
 농가에서는 농약값이 절반으로 줄어 하하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